용성전기(주)

35년간 자동 제어기기 국산화 주력, 국내 최초 원전 납품
연간 200억원 수입 대체 효과, '금탑산업훈장' 수훈

최필구
용성전기(주) 대표이사

1980년 회사 설립 이후 35년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용성전기(주)(대표이사 최필구)는 자동 제어기기 분야 국산화에 주력해 국내 업계 최초로 원자력발전소에 납품, 연간 2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둬 지난 2011년 '제46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받은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용성전기(주)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할 인물은 다름 아닌 지난해 타계한 창업주 최성재 전 대표다. 현 최필구 대표의 선친이기도 한 고 최성재 전 대표는 2000년부터 10여 년간 한국전력연구원 및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원전 설비 PCS(Plant Control System)의 핵심 부품인 스위치 모듈, 벨브 제어 리미트 스위치 등 각종 스위치류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주역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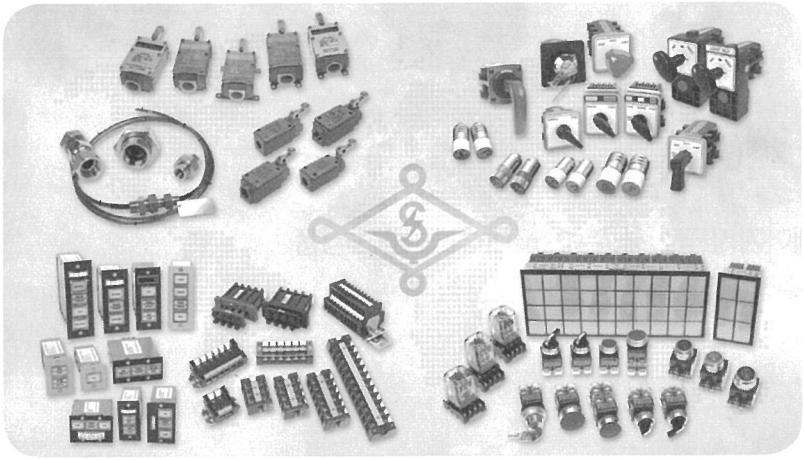
이 기기들은 미국 현지 시험 결과 '만점'을 받는 공인된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설비업체인 미국 HFC에 납품돼 연 200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둠으로써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각종 스위치류 등 다양한 제품 40개국 수출

그 이후 용성전기는 HFC와 MOU 체결을 통해 향후 HFC에서 공급하는 미국과 세계 각국의 원전용, 제어용 시스템에 용성전기의 스위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상 전년도인 2010년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벤드 회사로 등록돼 신고리 3,4호기 스위치류를 공급하면서 세계 원자력 발전 설비 시장에 진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원자력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자동 제어기기 국산화라는 한 길만을 걸어온 용성전기(주)는 현재 각종 스위치류, 릴레이류, 표시등류, 단자대류, 제어용 스위치 모듈, 전기 도체 밀봉 접합체(ECSA)를 주력 품목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국무총리 표창, 2007년 경영혁신상(산업자원부), 2004년 한국전기문화대상(과학기술부장관상), 2002년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연도별 각종 인증 획득을 통해 본 용성전기(주)는 2007년 UL 인증 획득 – AP12, AP13, AR2, AR3, AK2, AK3 스위치류(미국, 캐나다), CE 인증 획득 –



용성전기의 생산제품. 자동 제어기기 국산화라는 한 길만을 걸어온 용성전기(주)는 현재 각종 스위치류, 릴레이류, 표시등류, 단자대류, 제어용 스위치 모듈, 전기 도체 밀봉 접합체(ECSA)를 주력 품목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AP12, AP13, AR2, AR3, AK2, AK3 스위치류 , 2006년 CCC 인증 획득(중국 강제성 인증), CE 인증 획득 / 표시등류, 캠 스위치, 콘트롤 스위치 / 레버 스위치 , 2005년 전기용품 안전인증(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력원자력(주) 공급업체 등록(품질등급 : Q) , 2004년 UL 인증 획득 –표시등류, 캠스위치, 콘트롤 스위치류(미국, 캐나다) , CCC 인증 획득(중국 강제성 인증) – 릴레이, 캠 스위치, Ø22 시리즈, 2002년 벤처기업 선정(중소기업청), 2001년 유망 전력벤처기업 선정(한국전력공사) 2000년 심야 전력용 전자식(30A) 타임 스위치 개발 /원자력발전소용 콘트롤 스위치 모듈 개발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같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용성전기가 생산한 제품들은 현재 세계 40개국의 산업 플랜트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이미 3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자동 제어 기기 생산 종합 메이커로 발돋움

이제 용성전기(주)라는 배는 선친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최필구 대표 체제로 또 한 번의 도약과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 최필구 대표이사는 "품질 보증 시스템과 품질 경영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고충을 덜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는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능가하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끊임 없는 연구 개발과 산업 기기 발전에 발맞춘 품질 보증 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원자력용 및 일반 산업용 자동 제어 기기를 생산하는 종합 메이커로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필구 대표는 "금번 원자력산업회의 회원사 가입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주)를 주축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원전산업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면서 "용성전기가 걸어온 '무재해 / 무노사분규' 전통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독거노인 및 결손 아동 지원과 같은 지역 소외 계층 봉사와 나눔 실천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이상근 기자 / 프리랜서